

파시즘과 ‘제관양식’, ‘한국적 건축’의 관계

The Connection between Fascism, ‘Imperial Crown Style Japanese Architecture’ and ‘Korean Architecture’

김종균(킹스턴대학교)

Kim Jongkyun (Kingston University)

1. 서론
2. 파시즘과 신교전주의
3. 일제 파시즘과 제관양식
4. 제관양식과 한국적 건축
5. 마치며

* 이 논문의 일부는 저자의 『한국의 디자인』, (안그래픽스, 2013)에서 인용했음.

이 연구는 파시즘 시대 건축의 배경, 목적, 조형적 특징 등을 살펴보고, 이중 특히 일본 파시즘 디자인의 특징과 한국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고대 로마, 근대 이탈리아와 독일, 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의 대표 조형양식과 특징을 살펴본다. 이중 1930년대, 일본 파시즘 시대를 대표하는 ‘제관양식’ 건축의 발생과 특징, 변화과정,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당시 식민지 국가들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1960-70년대에 등장한 소위 ‘한국적 건축’과 제관양식 건축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을 찾고 영향관계를 유추해 본다. 아울러, 당시에 한국사회에서 진행된 다양한 민족주의 논의와 정치적 이벤트들과 일제 강점기, 일본의 활동내용을 결부하여 비교한다.

일제 파시즘 건축양식인 제관양식은 많은 부분에서 1960-70년대 국내에 등장했던 한국적 건축과 극히 유사하다. 당시 군부의 문화, 예술의 통제나 활용 경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적 건축은 일제 제관양식을 롤모델로 하여 만들어졌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1960-70년대 등장한 한국적 건축은 파시즘 시대의 건축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파시즘 건축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핵심어

일제 파시즘, 프로파간다, 독재, 제관양식, 홍아양식, 한국적 건축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e in the fascist era, as well as its purpose and background, and then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fascist design between Japan and Korea.

I carried out extensive research literature survey to investigate the architectural style and characteristics of imperialism imperialist countries that included Ancient Rome, modern Italy, Germany and Japan. This study also closely explored Teikan (Imperial Crown) style,” which represented Japanese fascism in the 1930s. It was compared and analyzed with Korean architecture during the 1960s and 1970s in Korea in order to find any similarities and their influential relationship. In addition, various nationalistic discussions and political events conducted in Korean society at the time were compared in relation to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activities carried out by Japan in Korea.

The Teikan architectural style conducted during the Japanese fascist era heavily influenced Korean architecture in the 1960s and 1970s. Therefore, it was assumed that Korean architecture followed the Japanese Teikan style, partly because of the culture of Korean military authorities, as well as the the authorities’ control of the arts at the time. As a result, the Korean architecture which

we saw emerge in the 1960s and 1970s has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fascism, and can thus be defined as fascist architecture.

Key Words

Japanese Fascism, Propaganda, Dictatorship, Teikan (Imperial Crown) Style, Heung-A Style, Korean Architecture

1. 서론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대부분의 조형작품은 당대를 대표하는 특정한 스타일(양식)을 따른다. 디자인 양식은 개인별 취향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없다. 신고전주의가 옳다거나 모더니즘이 나쁘다는 식의 윤리적 판단은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다. 특수한 정치·사회상황에 따라, 특정 디자인 양식이 특정한 정치성을 띠거나, 상징성을 가지게 될 경우 양식의 우열을 논하기도 했다. 순수미술에서는 냉전시기, 사실주의와 추상미술이 각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표양식으로 선전되며 서로를 부정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히틀러(Adolf Hitler)는 과거 신성로마제국(962-1809)이 정복지를 억압하고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던 건축 양식과 상징을 차용하여 독일 나치의 정치 선전물로 활용했다. 나치 시대 건축물은 늘 건축 이면에 내재한 권력의 의도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었고, 디자인 양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뒤따랐다.



[그림 1]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모자에 새겨진 독수리 문양

문양이나 장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징성을 띤 장식, 예컨대 독수리 문장 등은 역사 이래로 늘 지배자의 신격화된 권위와 권력의 정통성을 강요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그리스·로마신화에서 이슬람까지 독수리는 불사조이자 하느님의 사자로 신성하게 여겼다. 독수리 문장을 사용하는 권력자는 신의 권력을 사람과 연결해 주는 매개체이자,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고, 신의 사자였다. 로마의 제국주의를 선명한 프랑스의 나폴레옹 역시 독수리 문장을 사용했고, 독일 히틀러, 이탈리아 무솔리니(Benito Mussolini) 역시 독수리 심볼을 모든 군복에 패착하고 다녔다. 현대인은 디자인 속에서 등장하는 독수리 문양을 통해 제국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파시즘을 읽어 내게 된다. 파시즘이 지향했던 신고전주의 건축도 독수리 문양과 마찬가지로 2차적 의미가 부여되었다. 이 경우, 양식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은 어려워지고 윤리적 판단이 가해지기도 한다. 신고전주의 건축은 파시즘 건축으로 폄하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파시즘 건축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피고, 그 중 독특한 양상을 띠었던 일본 파시즘 건축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아울러,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등장한 소위 ‘한국적 건축’의 특징을 살피고, 파시즘 건축과의 상관관계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2. 파시즘과 신고전주의

‘파시즘(Fascism)’은 이탈리아어 파쇼(Fascio)에서 유래한 말로, ‘묶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결속’ 또는 ‘단결’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파시즘은 20세기 초, 유럽 국가 각지에서 등장한 정치이데올로기이다. 제1·2차 세계대전 사이에 대부분의 국가에 파시즘적 정치운동이 일어났다. 그중 무솔리니의 체제, 히틀러의 나치 ‘제3제국’, 스페인의 프랑코(Francisco Franco Bahamonde) 체제, 쇼와(昭和) 초기의 일본의 천황제 등이 성공한 대표적 파시즘 체제이다. 전체주의의 대표 격인 파시즘은 ‘과잉성을 띤 국가주의(Nationalism)’라 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의 완전한 통합을 추구하며 사회적 갈등은 철저히 배제했다. 통상 파시즘은 열광적인 지도자 숭배를 수반하는데, ‘퓨라’(히틀러), ‘두체’(무솔리니) 등 지도자를 칭하는 특별한 호칭을 만들었고, 일본은 ‘천황(天皇)’이라 부르며 신격화하는 데까지 이르렀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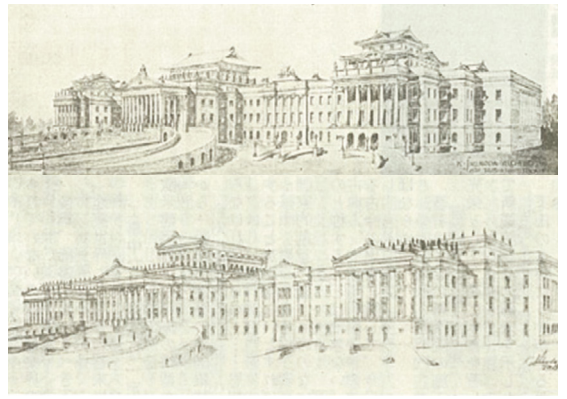
파시스트들은 곧잘 디자인을 통해 체제선전을 시도하였는데, 파시즘 국가 모두에서 유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이탈리아 파시스트는 기계문명을 찬양했고, 사회도 기계장치처럼 기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예술에서는 기계문명의 속도와 힘을 찬양하는 ‘미래파’가 등장했다. 미래파는 전통을 부정하고, 강하고 단단하면서 빠르고 힘이 센 현대의 기계들, 예컨대 비행기나 기차 등을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표현기법으로 그려나갔다. 특히 건축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졌다. 당시 이탈리아 독재자 무솔리니는 “고대 로마의 위대함을 상실케 하는 평범한 건축에서 탈피하고 고대 로마의 모든 위대한 건축물들의 보존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동시에 20세기의 기념비적인 로마를 창출해야 한다.”라고 역설하면서 ‘로마 만국박람회’와 같은 대규모의 신고전적 기념물을 건설하였다. 무솔리니는 자신을 아우구스투스(Augustus)와 동일시하였고, 새로운 로마를 만들고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흐름에 동조하여 1922년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결성된 노베첸토(Novecento) 그룹은 유럽의 아방가르드 풍조를 거부하고 15-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전통을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1930년대 이탈리아에 지어진 신고전주의 양식 건축을 ‘노베첸토 양식’이라고 부른다.²⁾

Id=42140, (2020.7.15)

1 네이버 지식백과, 21세기 정치학대사전, <https://terms.naver.com/list.nhn?cid=42140&category>

2 데이비드 어윈, 『신고전주의』, 정무성 옮김, (한길아트, 2004), pp.395-400

독일에서는 바우하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모더니즘(국제주의 양식)이 유행하고 있었으나, 히틀러는 나치가 승인하지 않는 미술작품을 ‘퇴폐미술’로 규정하여 금지했다. 대신 고대 로마의 영광을 나타내는 고전주의 건축 양식에 주목하고, 신고전주의 미술 양식을 통하여 ‘새롭고 순수한 독일 미술’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고전주의 건축을 바탕으로 크고 장대하며, 직선으로 정형화된 건축들을 통해 새로운 베를린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궁극적으로는 독일 나치즘이 고대 로마와 같은 위대한 문명을 세울 것을 선전하는 도구였다. 천황 중심의 일제는 개항 초부터 유럽의 고전주의 건축양식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였다. 이탈리아, 독일과 쾰른 같이 하여 서구의 신고전주의 양식을 국가 공인 양식으로 선포하고 모든 실험미술을 금지하였다.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 사회에도 국제주의 모더니즘 스타일의 건축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신고전주의 건축만 등장했다.(김종균, 2013) 하지만,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신고전주의에서 탈피해 일본만의 독특한 스타일인 ‘제관(帝冠)양식’을 만들어 파시즘적 색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구소련 역시 일명 ‘스탈린 양식’이라 불리는 크고 웅장한 신고전주의(사회주의적 리얼리즘) 양식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노력하였고, 1980년대 중국과 북한은 그 영향을 받아 신고전주의 양식이 일부 선보인다. 전체주의 체제하에서 건축과 디자인은 대개 체제의 우수성을 선전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림 2] 시모다의 국회 의사당 설계안(위: 일본식 지붕, 아래: 그리스 신전풍)

3. 일본 파시즘과 제관(帝冠)양식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는 건축을 통한 근대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지만, 건축 양식은 자신들의 역사와는 하등의 상관도 없는 서구의 고전주의 건축을 흉내 냈다. 일본은 근대화 초기부터 ‘탈아입구(脫亜入歐)’를 주장하며 아시아 일원임을 부정하고 강한 서구 국가에 편입되기를 원했고, 르네상스 건축에 경도되어 있었다. 한 예로, 1919년, 제국의회(현 국회의사당) 건축설계 경기에 입선한 모든 건물이 르네상스 양식일 정도였다. 이러한 경향에 반대한 시모다 기꾸타로(下田菊太郎)는 2차례에 걸쳐 의회 건축 디자인을 변경할 것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시모다는 “제관합병식(帝冠併合式)”라고 칭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고전주의 벽체에 일본식 지붕을 올린 건축을 제안했지만, 당시 건축계에서 묵살당했다. 이 시기, 일제를 통해 식민지 조선에 지어진 여러 건축에서도 예외 없이 르네상스 건축의 흔적이 발견된다. 중앙총독부(1926-철거)나, 구 서울역

건물(1925-), 한국은행 화폐박물관(구 조선은행 본점, 1912-)의 경우, 육중한 석조건축에 르네상스 건축의 전형적인 특징인 둥근 돔과 아치를 차용하고 있다.

그러던 중 1920-30년대에 걸쳐 일본에서 고전건축이 쇠퇴하고, 모더니즘 양식이 도입되는 등 다양한 건축 양상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동시대 서구에서는 아르누보 열풍이 지나가고, 아르데코 양식이 유행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하나의 건물에 여러 양식이 결합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났는데, 특히 주목할 부분은 서구 신고전주의 건물에 일본 전통요소를 혼합하는 경향이다. 파시즘이 극에 달하던 1930년대, 이토 주타(伊東忠太), 사노 토시카타(佐野利器), 다케다 고이치(武田五一) 등의 건축가들이 ‘화양절충(和洋折衷)³⁾’의 건축 양식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이 심사위원을 맡은 건축설계공모에서는 서양식 철근콘크리트 건축에 일본식 지붕을 얹은 건축물이 다수 선정되었다. 건축물 상단에 올려진 일본식 지붕을 황제의 왕관에 빗대어, ‘황제의 왕관’ 양식, 즉 ‘제관양식(帝冠様式, ていかんようしき)’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1930년대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경향으로 자리 잡았다. 대표적인 예로, 가부키 극장(歌舞伎座, 1924)[그림 3], 시바구청(芝区役所, 1929), 동방문화 동경연구소(東方文化東京研究所, 1933),



[그림 3] 가부키 극장(歌舞伎座, 1924)



[그림 4] 비와호 호텔(琵琶湖ホテル, 1934)

비와호 호텔(琵琶湖ホテル, 1934)[그림 4], 가마고리 관광호텔(蒲郡観光ホテル, 1934), 여성 회관(女子会館, 1936) 등이 있다.

이런 건축물들이 등장한 배경은 3가지 정도로 축약된다. 우선, 국제교류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이국적 취향(exoticism)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일본풍을 건축물에 반영한 것이었다. 특히 외국인들의 왕래가 잦은 곳은 제관양식이 어김없이 차용되었다.⁴⁾ 같은 시기, 식민지

3 일본에서 ‘화양절충(和洋折衷)’이란 서양식과 일본식을 섞는 것을 말하며, 에도막부 말기 주자(朱子)학자 사이토오세츠도(齋藤拙堂)가 주창했다. 화양절충 건축으로는 후지야(富士屋)호텔이 대표적이다.

4 井上章一, 『戦時下日本の建築家』, (朝日新聞社, 1995), pp.48-53

조선에서는 조선미술전람회를 통해 이국적 취향을 소비하는 ‘조선 향토색’ 논의가 일었다. 공예부문에서는 이국적 취향으로서의 조선전통을 차용하는 것이 매우 유행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군의 공중 폭격을 대비하여 일본식 지붕을 위장막처럼 차용한 군사시설을 짓는 경우였다. 마지막으로 일본 민족주의 정신을 고취하려는 목적으로 일본식의 기와지붕을 걸친 웅장한 건축물을 짓는 것이었다. 관공서, 공공기관 등에서 이런 현상이 뚜렷했다. 가나가와현 청사(小尾嘉郎, 1928), 나고야 시청(平林金吾, 1933), 일본생명관(현 다카시마야 니혼바시점, 高橋貞太郎, 1933), 교토시 미술관(前田健二郎, 1933), 도쿠가와 미술관(尾張徳川美術館, 佐野時平, 1934), 아이치현 청사(渡辺仁, 西村好時, 1938), 시즈오카현 청사(泰井武, 1938) 등에서는 어김없이 제관양식이 적용되었다. 그 중 특히 제관양식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는 군인 회관(小野武雄, 1934)[그림 5], 동경국립박물관 본관(渡辺仁, 1937)[그림 6]으로, 크고 육중한 콘크리트 건축물 상단에 큰 일본식 기와와 서까래, 용마루 등의 장식이 잘 모사되어 있다.⁵⁾

1930년대 일제의 제관양식은 정권에 의해서 강제된 것은 아니었다.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파쇼 정권처럼 건축양식을 엄격히 제한한 적이 없으며, 설계경기의 조건으로 제시하지도 않았지만,

5 위키디피아 帝冠様式, <https://ja.wikipedia.org/wiki/帝冠様式>, (2020.5.3)



[그림 5] 군인회관(小野武雄, 1934)



[그림 6] 동경국립박물관(東京国立博物館, 渡辺仁, 1937)

심사관의 심사경향을 통해 건축양식은 통제되는 셈이나 마찬가지였다. 1926년 가나가와현 청사, 1930년 나고야 시청의 설계경기 규정에 일본 취미를 반영하라는(일본식 지붕을 올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줄곧 이러한 작품들이 입선하자, 점차 그 출품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나고야 시청 설계경기에서는 여덟 개 안 중 세 개 안만이 제관양식이었던 것이, 군인회관에 이르러서는 입선 안 10점 전부가 일본색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에 반대하고 모더니즘 건축을 지향하는 젊은 건축가들은, 일본 전통건축은 목재에 어울리는 조형으로 철근 콘크리트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을 가했고, 일본 국제건축위원회는 출품거부를 선언하고, ‘국치’라고 할 정도로 심하게 반발했으나 별 소용이 없었다.⁶⁾

그러던 중, 1937년 중일전쟁 시작과 함께 ‘철강공작물 건축허가제(鐵鋼工作物建造許可規制)’가 공포되었고, 군사적 목적의 건축이 아닌 이상, 50톤 이상의 철재 사용을 금지하였다. 이로 인해 더 이상 장식적인 건축을 지을 수 없게 되자 제관양식의 건축은 점차 줄어들었다. 곧이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민주주의가 도래하자 파시즘을 부정하는 시대가 되었고, 건축계는 일본취미 건축, 즉 제관양식을 ‘일본 파시즘 양식’이라고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일본식 기와지붕에 대해 국수주의 정신을 고취하려는 시도라고 매도했다. 실제 유수칸(遊就館, 1931), 군인 회관 등 일부 건축은 국수주의 고취가 목적인 건축이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오사카성 공원 내에 세워진 4사단 사령부 청사(1931)는 오사카시에서 제관양식 건축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영국 중세 성곽을 본뜬 디자인을 채택했다. 오사카 군인회관(1937)도 모더니즘 디자인을 채용했다. 일부 건축가들은 오히려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건축양식을 강제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토로할 정도였으니, 엄밀히 말해서 제관양식이 일본 정부가 주도한 파시즘 양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전후의 건축 평론가들에 의해 “제관양식은

파시즘”이라는 등식이 정설로 굳어졌다. 일본 파시즘이 가장 극성이던 시기인 1930년대에 집중적으로 등장했던 제관양식은 파시즘과 함께 사라졌다.⁷⁾

4. 제관양식과 ‘한국적 건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시즘 정권은 공통적으로 신고전주의 건축을 신봉했지만,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스케일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독일의 나치즘이나 이탈리아의 파시즘 건축은 크고 웅장한 대규모 도시계획을 추진하여 체제 선전의 수단으로 활용했지만, 일본은 대규모 건축이 ‘사치’라는 이유로 억제되었고, 소규모의 건축이 진행되었다. 또 독일과 이탈리아가 고전주의 건축에 모더니즘을 접목하였다면 일본은 자신들의 전통건축을 결합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갔다. 또 독일, 이탈리아가 정부주도로 건축양식을 직접 통제하였다면, 일본은 공모전 심사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통제했다.

일제 제관양식은 당시 식민지였던 동아시아 지역 곳곳에서 그 영향이 발견된다. 1930년대 일본의 괴뢰정부로 중국 만주일대에 세워진 만주국은 제관양식의 만주국 버전인 ‘흥아(興亞)양식’이 유행했다. 관공서와 공공건물은 육중한 철근콘크리트 몸통에 중국과

6 井上章一, 『戦時下日本の建築家』, pp.23-35

7 위키미디어 帝冠様式, <https://ja.wikipedia.org/wiki/帝冠様式>, (2020.5.3)



[그림 7] 만주국 황궁(1938-), 현 중국 장춘지질학원(만주국 흥야양식)



[그림 8] 대만 가오송 시립역사박물관(1939)

일본풍이 뒤섞인 지붕을 올렸다. [그림 7]⁸⁾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에서도 다수 발견된다. [그림 8]

그런데, 일본의 제관양식은 우리나라 유신시기에 집중적으로 이어졌던 일명 ‘한국적 건축’과 조형 양식뿐만 아니라, 건축의 접근 방법까지 매우 유사하게 관찰된다. 1960-70년대,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서 정부주도로 지어진 수많은 공공건축물은 대개가 높은 콘크리트 벽체에 한국전통의 기와지붕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북한에서 지어진 ‘평양대극장’, ‘인민문화회관’, ‘인민대학습당’, ‘옥류관’ 등 기념비적인 거대 건축물들에서도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스탈린 양식’⁹⁾의 영향으로 좌우 대칭과 중심의 강조는 크고 웅장한 대규모 건축과 함께 전통에 대한 많은 고심의 흔적이 드러난다.

하지만, 남북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북한이 비교적 전통 건축조형에 충실한 반면, 한국은 많은 부분 추상화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남한과 북한의 권력층은 민족주의를 강조했고, 건축가들은 건축의 발주처인 정부의 관심사를 반영하기 위해 전통적인 조형요소, 특히 그 특징이 두드러진 기와지붕 따위를 현대 콘크리트 건물에 접목했다. 건축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군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기에, 전통과 현대를 피상적인 형상 차원에서 접목하는 것은 어떤 건축가라도 쉽게 채택할 수 있는 단순한 건축 방법이었다. 그래서인지 건축계는 과거 한 시기를 풍미했던 소위 ‘한국적 건축’을 세계사의 흐름에서 동떨어져 자생적으로 생겨났던 다소 엉뚱한 건축, 독재정권기에 군부의 몰이해로 잠시 발생한 건축 경향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과거 세계 파시즘 정권과 유사하게 민족주의 문화정책을 적극 펼쳤고,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문화유적을 복원하는 것이었다. 1961년 문화재 관리국 설치하고, 1962년의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한 이후,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문화재 보수정화사업을 펼쳤다. 남대문 중수공사(1961)를 시작으로,

8 김소연, 『경성의 건축가들』, (루아크, 2017), pp.77-79
 9 스탈린 건축은 소련의 스탈린 정권 시대에 많은 지어진 건축양식이다.(1933-55) 크고 화려한 마천루 건축으로 좌우대칭형에 가운데가 주변이 낮아지는 피라미드 형 건축이 많다. 동독, 중국, 몽골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국가	1920-30년대 등장한 파시즘적 건축 양식과 영향
러시아	스탈린 양식 ▶ 동독, 중국, 북한 등 건축에 영향
일본	제관양식 ▶ 만주, 대만 등 식민지국가에 '홍아양식'으로 전파 ▶ (6-70년대) '한국적 건축'에 영향
독일	신고전주의 ▶ 소멸
이탈리아	노베첸토 양식 ▶ 소멸

[표 1] 파시즘 건축양식과 그 영향 관계

동대문 단청 보수공사(1963), 경복궁 경회루 단청 공사(1963), 북한산 성곽 보수공사(1963), 낙산사 5층 석탑, 석불 복원(1965), 경복궁 민속관 개관(1966), 탑골공원(파고다공원) 중수 착공(1967), 광화문 복원 착공(1968), 사직공원 내 단군성전과 사직기념관 단장(1968), 도산서원 보수정화공사(1969), 불국사 복원(1969), 침성대 보수공사(1970), 한산도 충무공 유적 보수정화공사(1970) 등, 1960년대 내내 전국 도처에서 문화재 복원사업을 전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호국선현 유적지와 국방유적지도 대대적으로 보수했는데, 경주 통일전, 서울 낙성대, 통영 제승당, 부산 충렬사, 진주성, 남한산성, 행주산성 등이 보수·정화되었다.

이 시기 민족주의 문화정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통일신라시대를 과거의 '황금시대'로 상정하고, 경주를 중심으로 역사를 재정의해 나갔다는 점이다. 특히 '화랑'은 신라 왕실과 국민을 위해 죽음을 불사한 멸사봉공(滅私奉公) 집단으로 그려져 추앙되었다. 나라를 위해 개인을 연마하며 공산주의 박멸을 위해 기꺼이 전장으로 나설 국민을 길러내는데, 화랑은 더없이 적합한 역사적 소재였다. 화랑이나 침성대, 불국사,

신라금관 등의 신라 유물들은 건축과 디자인의 주요한 모티브로 활용되어 다양한 형태의 '한국적 디자인'을 생산해 냈다. 나폴레옹 제국이나,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 파시즘은 고대 로마제국을 황금시기로 상정하고 로마제국이 사용하던 각종 조형양식을 여과 없이 재생산하는 것에 비견되는 부분이다.(김종균, 2013)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숭배하던 이순신 장군 관련 유적지는 보수의 차원을 넘어 '성역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충무공에 대한 대통령의 애정은 각별하여,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유적지의 '성역화 사업'은 단순한 보수를 넘어서 주변 환경 정화와 편의시설, 기념비 건립 등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유적지로 조성되었다. 전통 사원과는 달리 모든 건축물을 일직선으로 배열하여 직선 중심축을 강조하고 기념조형물이나 동상을 세워 권위를 더했다. 각 건물은 시멘트 콘크리트로 제작하면서도 외관의 형태는 전통 목조 건축물 형상을 그대로 모사하였다. 그러나 색채만큼은 전통을 따르지 않았는데, 과거 오방색으로 칠해졌던 단청은 제거되는 경우가 많았다. 단청은 사찰이나 궁궐에서 사용되던 오방색의 조합으로 신성함의 상징이자 악귀를 쫓고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던 한국만의 전통문양이다. 민족주의를 부각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신성시하던 단청만큼 좋은 전통소재도 없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이 오방색을 무척 싫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신 지붕을 제외한 건물 전체가 '백색'이나 '박정희 컬러'라고 불리는 옅은 베이지색 계열의 소위 '계란 색'이 칠해졌다.

건축을 '백색'으로 마감하는 것은 한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보았던 당시 미술계의 분위기도 일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일제 문화통치기의 야나기 무네요시에 의해서 규정된 조선의 미가 확대 재생산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혹은 무채색만을 소위 ‘착한’ 색상으로 규정했던 모더니스트들의 영향일 수도 있다. 하지만, 베이지색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 불명확한데, 여러 곳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일설에는 육영수 여사가 가장 좋아했던 색이라 채택되었다고도 한다. 아무튼 ‘한국적 건축’뿐만 아니라, 새마을 운동 접미에서 시골 마을 어귀에 만들어진 공동변소에 이르기까지 베이지색은 군부가 가장 좋아하는 색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림 9] 국립민속박물관(구 국립중앙박물관, 1972)



[그림 10] 광주박물관(1978)

1970년대에는 전국 각지에 많은 박물관이 건립되어 역사와 문화에 대한 계몽에 박차를 가하였다. 부여 박물관(1971), 국립 중앙박물관(1972), 공주 박물관(1973), 경주 박물관(1975), 부산 시립박물관과 광주 박물관(1978)[그림 10] 등 수많은 박물관이 새로 신축되었는데, 당시 공공건물의 설계 지침에는 “한국성의 표현, 재창조, 승화”와 같은 식으로 표현되어 직접적으로 민족주의를 강요하였고, 대부분의 건축물에 이러한 요구사항이 어김없이 반영되었다. 1966년 중앙박물관은 현상 공모 당시에 주관 관청이 제시한 설계 조건이 “건물 외형은 지상 5층 내지 6층, 지하 1층 건물로 그 자체가 어떤 문화재의 외형을 모방해도 좋음”, “건물 자체가 어떤 문화재의 외형을 모방함으로써 콤포지션 및 질감이 그대로 나타나게 할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스타일의 건물을 지을 것인지를 규정해주고 있다. 결국 ‘불국사’, ‘삼국 시대의 기단’, ‘경복궁 근정전의 난간’,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황전’ 등 9개의 전통건축을 조합하여 콘크리트로 모사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림 9] 이후 이 건물이 하나의 전형이 되어 공공건축물에 전통 모사적인 형식이 범람하게 된다. 일부 건축가는 정부의 이러한 규정에 반발하여 공모전에 불참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배고픈’ 건축가들은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못 본 척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김종균, 2013)

전통적 소재와 근대건축물의 조합으로 대표되는 ‘한국적 건축’은 독재정권이 끝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후배 건축가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김수근은 생전에 기와지붕을 올리고



[그림 11] 유수칸(遊就館, 1931) 전경과 유수칸의 일부

계란색을 칠한 건축물을 ‘박조(朴朝) 건축’이라고 폄하했다. ‘한국적 건축’은 분명 1960-70년대 오랜 시간 동안 한국 근대의 외형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음에도 군부가 왜 그런 조건을 내세웠는지, 누구의 생각이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단순히 군부의 무지에서 비롯된 설계요건에, 당시 정권에 동조한 일부 건축가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제시된 적당한 선의 야합이자, 절충선 정도로 인식될 뿐이다.

하지만, 거대한 서구 근대건축물 위에 뜬금없이 올려놓은 기와지붕과 창살문양 등의 표현은 우발적으로 생겨난 조형양식으로 보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등장했다. 1960년, 군사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건축계 내에서 별다른 한국건축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분명 건축계가 먼저 제시한 스타일은 아니다. 건축가는 자신의 신념과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요구대로 설계를 했다는 증언이 여럿 남아있기도 하다. 오히려 ‘한국적 건축’에 대한 지향점은 건축을 발주한 군부 측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정교한 설계요건을 발표한 군부의 태도는 과거 일제강점기에 등장한 제관양식의 강렬한 각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미루어 짐작된다. 분명 콘크리트 건축물에 전통 요소를 결합하는 것은 군부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며, 1960-70년대 국내 기념비적 건축들이 보여주는 특징은 일제 강점기 ‘제관양식’이 보여주는 조형적인 특징과 우연 이상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 대표적인 파시즘 건축인 유수칸(遊就館)과 국내 국립현충원의 양식을 비교해보면, 그 기본 컨셉이나 구조, 심지어 색상까지 거의 동일하다. 우선 일본 야스쿠니 신사 내에 위치한 ‘유수칸’의 형식을 살펴보면 좌우 대칭 형태에 일본전통 기와지붕을 올리고, 그 아래 시멘트로 서까래를 모사하였으며, 간결한 벽체에 베이지색을 칠하고 있다. [그림 11] 국립대전현충원의 좌우 대칭형의 건축물에 한국 전통기와를 올리고, 그 아래 시멘트로 모사한 서까래와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궁궐, 사원 등에 당연시되며 사용되던 단청문양을 제거하고 베이지 계열의 ‘계란색’이 칠해졌다. 그 아래로는 벽체 대신



[그림 12] 국립헌정총원(대전, 1979)



[그림 13] 충렬사(부산, 1978)



[그림 14] 어린이회관(서울, 1975)

간결한 기둥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림 12]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여타 기념 건축물의 구성도 거의 동일하며, 공통으로 계란색을 사용하고 있어, 그 뿌리가 일제임을 추정케 한다. [그림 13, 14] 물론 해당 건축 설계 당시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법이 제한적이고, 제관양식 건축이 모두 공통적으로 계란색만을 쓴 것이 아니므로, 몇 가지 이유만으로 일본의 모방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른다.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 만주국 신경육군군관학교를 다닌 시기가 1940-42년이며, 동경에서 일본 육사를 다닌 시기는 1942-44년까지이다. 당시 일제 괴뢰국가로 건국된 만주국(1932-45)은 한참 거대 토건사업을 통해 새로운 사회가 건설되고 있던 시기였고, 새로 지어진 각종 거대 건축물이나 기념비들은 제관양식의 만주국 버전인 홍야양식을 띠고 있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이 동경에 머문 시기는 막 제관양식의 열풍이 지나간 시기로 새롭게 단장한 수많은 제관양식 건축물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시기였다. 이 시기 일본이 서구의 근대를 오해하며 모더니즘이 아닌 신고전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듯, 제관양식을 일본의 근대문물로 오해하여 당시 조선인들에게 깊은 각인을 남겼을 수 있다. 이러한 추측에 힘을 보태주는 사례는 여러



[그림 15] 일본 황궁 내,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 동상

가지가 있다.

가령, 1960-70년대 한국 사회 곳곳에 수많은 역사적인 위인 동상이 세워진 계기가 일본의 영향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원래 동아시아에는 동상을 만드는 전통이 없다. 제국주의 초기, 일본은 서구를 흉내 내어 국가적 애착 및 민족적 자긍심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의 수많은 군신상(軍神像)을 세웠다. 그중 중세의 전쟁 영웅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 1294-1336)¹⁰⁾를 새롭게 조명하고 황궁(皇宮) 앞에 군신상을 세움으로써 근대 국민국가를 창출해 나가는데 구심점으로 삼았다. 이는 우리가 충무공을 부각하여 각 도시에 동상을 세우고, 열사봉공의 자세로 적에 맞서는 애국시민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모습과 겹친다.

또한, 1967-79년 사이에 정부 주도로 진행된 민족기록화 제작사업은 일본이 중일전쟁 기간 동안 진행한 ‘작전기록화’ 제작사업이나 ‘메이지 천황 기록화’와 거의 같은 형태¹¹⁾로

10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는 일본 가마쿠라(鎌倉)시대 말기의 무장(武將)으로 고다이고(後醍醐西胡) 천황을 도와 가마쿠라 막부를 멸망시키는 데 공을 세운 인물이다. 천황에 대한 충성심의 상징적 존재로 일본 제국주의는 ‘칠생보국(七生報國, 7번 다시 태어나더라도 적을 무찌른다)’, ‘열사봉공(滅私奉公)’ 등의 문구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데 활용되었고, 당시 조선 내에도 다수의 동상이 세워졌었다.

[그림 15]

11 정부가 미술가들을 동원하여 그려낸 ‘민족기록화’ 역시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그려진 대동아전쟁 ‘작전기록화’나, 일본 메이지신궁외원(明治神宮外苑) 내 성덕기념회화관(聖德記念繪畫館)의 벽에 걸린 메이지 천황 벽화들을 본 딴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혜성, 『1960-1970년대 민족기록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3), pp.11-12. 전쟁기록화는 중일전쟁 기간 ‘그림으로 국가에 보답한다’는 의미의 ‘채관보국(彩管報國)’의 구호

진행되기도 하였다. 당시 한국 내 문화예술 관련 많은 공공정책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시행된 정책들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¹²⁾

5. 마치며

한국전쟁 이후, 전후 복구가 한창이던 시절, 미군이 발주하는 수많은 시설들은 모두 우리에게는 낯설고 새로운 모더니즘 양식의 건축이었다. 비록 모더니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없었지만, 그것이 새로운 선진 문물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모더니즘으로 채워져 나가는 한국의 공간들은 급속한 미국화라는

아래, 육군성과 해군성 등이 조직적으로 미술가들을 동원해 작전기록화를 제작했다. 군부는 미술 재료와 도구까지 보급하며 해외에서 전쟁 중인 일본군의 전쟁 장면을 기록화로 그리도록 하였다. 서구의 역사화에 비견될 정도로 큰 캔버스에 전쟁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 국민을 고무시키는 프로파간다 수단으로 활용했으나, 패전 이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메이지 천황 기록화’는 일왕의 출생에서 사망 시까지 주요한 활동과 업적, 사건들을 80점의 기록으로 남긴 것으로 일왕을 미화하고 일본 국가의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국내 민족기록화가 그려질 당시, 국내 화가들은 기록화라는 장르가 생소하여, 일부 작가들은 기록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일본 메이지 신궁을 다녀오기도 했다. 김종필이 기획하고 군부에 의해 주도되었던 우리의 민족기록화도 미술 재료와 도구가 지급되고, 완성된 작품은 정부에서 전량 구매하였으며, 특정한 주제의 기록화를 제작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미루어, 일본의 전례를 롤 모델로 삼았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민족기록화는 명백히 정권의 프로파간다를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한차례 전시 이후 그림들은 대부분 어디론가 사라졌다. 작가들 역시 작품에 대해 침묵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작전기록화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12 사회학자 한석정은 그의 글 ‘박정희, 혹은 만주국판 하이 모더니즘의 확산’(2010)에서 한국 개발독재기에 박정희 정권이 시행한 정책들이 대부분, 만주국 건설과정에 일제가 시행했던 식민지 진흥정책을 모사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판 속에서도 나름의 체계를 잡아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모더니즘 건축은 장식을 배제한 추상적인 형상으로 경쾌한 느낌을 주며, 철골과 유리의 특성상 전통건축에 비해 무게감이 없고 가볍다는 특징이 있어 권위주의 시대를 표상하는 건축으로서는 이미지가 약했다. 모더니즘 건축은 1960년대 이후 집권한 군부 정권이 요구하는 혁신성은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나, 정권의 권위와 위엄, 정통성을 표현하기에는 가뻐왔다.

모더니즘이 등장한 이후의 모든 파시즘 체제 정권은 어김없이 고전주의를 향수하고, 민족을 강조하며 민족적인 조형을 내세우는 수순을 밟았다. 과거 고전주의는 돌을 주재료로 하여, 육중하면서도 살아 움직일 것 같은 감동을 주는 건축을 추구했다. 하지만, 파시스트 건축은 사람을 압도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이태리 밀라노나 로마에 무솔리니가 만들어낸 노베첸토 양식의 대부분이 이러한 이유로 비판받고 있다. 밀라노 중앙역은 거대한 스케일과 육중함으로 사람을 억압한다.

우리의 근대화 과정, 즉 유신독재 기간 동안 등장한 기념비적인 건축, 가령 세종문화회관이나 국립극장, 국회의사당 등이나, 기와지붕을 뒤집어쓴 다양한 박물관 들은 육중하면서 건조하며, 전통도 서구 고전도 아닌 애매한 형상으로 사람을 압도한다. 1960-70년대에 한국 사회에서 정부 발주로 지어진 소위 ‘한국적 건축’은 분명 한국 사회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건축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가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지워지고, 후배들에 의해 부정되거나 조롱당할 뿐, 이렇다 할 연구나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적

건축’은 유신정권을 찬양하는 프로파간다 역할을 수행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는 세계사 속에서 파시스트들이 건축을 활용하는 방법과 흡사하다. ‘한국적 건축’은 전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던 건축가들의 부끄러운 유산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제관양식과 같은 목적과 역할을 기대한 파시즘 건축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지 않으며, 그 방법 역시 모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담이 남는 부분은 건축물을 파시즘 건축으로 구분할 경우, 이 건축을 발주한 정권을 파시즘 정권으로 분류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독재정권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아직도 분분하며 언제나 내분과 갈등을 일으키는 지점에 있으므로, 선불리 구분하고 명명하기에 많은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❹

참고문헌

- 김소연, (2017), 『경성의 건축가들』, 루아크
- 김종균, (2013), 『한국의 디자인』, 안그라픽스
- 데이비드 어윈, (2004), 『신고전주의』, 한길아트
- 박혜성, (2003), 「1960-1970년대 민족기록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한석정, (2010), 「박정희, 혹은 만주국관 하이 모더니즘의 확산」, 『일본비평』 3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井上章一, (1995), 『戦時下日本の建築家』, 朝日新聞社

- 네이버 지식백과, (2020.07.15.), 21세기 정치학대사전, <https://terms.naver.com/list.nhn?cid=42140&categoryId=42140>
- 유슈칸 홈페이지, (2020.7.15), <http://www.yasukuni.jp>
- 위키피디아 帝冠様式, (2020.5.30), <https://ja.wikipedia.org/wiki/帝冠様式>
- 최태만, (2011.8.14), 「일본의 대표적인 전쟁 기록화가 후지타 츠구하루」,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110815.22018190212>
- [그림 12] 국립현충원 (대전, 1979)
- [그림 13] 충렬사 (부산, 1978)
- [그림 14] 어린이 회관 (서울, 1975)
- [그림 15] 일본 황궁 내, 구스노키 마사시게 (楠木正成) 동상

표 차례

- [표 1] 파시즘 건축양식과 그 영향 관계

그림 차례

- [그림 1]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모자에 새겨진 독수리 문양
- [그림 2] 시모다의 국회 의사당 설계안
- [그림 3] 가부키 극장 (歌舞伎座, 1924)
- [그림 4] 비와호 호텔 (琵琶湖ホテル, 1934)
- [그림 5] 군인회관 (小野武雄, 1934)
- [그림 6] 동경국립박물관 (東京国立博物館, 渡辺仁, 1937)
- [그림 7] 만주국 황궁(1938-), 현 중국 장춘지질학원 (만주국 홍아양식)
- [그림 8] 대만 가오슝 시립역사박물관(1939)
- [그림 9] 국립민속박물관 (구 국립중앙박물관, 1972)
- [그림 10] 광주박물관(1978)
- [그림 11] 유슈칸 (遊就館, 1931) 전경과 유슈칸의 일부